

KAZA Newsletter

2020 May.
Vol.1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동물원·국공립 야영장 순차 개방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한다. 국공립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을 순차적으로 부분 개방할 계획이다.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2월 넷째주부터 휴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공원 등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 해 운영을 하고 있다.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출처 : 중앙일보

전주동물원에 '잔나비의 숲' 조성...멸종위기종 새 식구로



전북 전주동물원은 원숭이들에게 자연환경에 가까운 야외 방사장을 제공하기 위해 '잔나비의 숲'을 조성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재 전주동물원에는 아누비스개코원숭이 1마리와 흰손긴팔원숭이 2마리, 다람쥐원숭이 22마리, 망토개코원숭이 2마리 등 4종의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들의 새 보금자리인 잔나비의 숲은 건축물 3개동과 내실 7개, 방사장 8개, 다람쥐원숭이 전용 야외방사장 등을 갖춰 더 많은 동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조성됐다.

다람쥐원숭이 전용 야외방사장의 경우 최대 높이 9.5m의 원형으로 돼 있어 원숭이들의 다양한 점프를 볼 수 있게 됐다.

동물원 측은 잔나비의 숲 조성에 맞춰 토쿠원숭이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등 멸종위기종에 해당되는 원숭이 2종을 새 식구로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출처 : 뉴스1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

서울대공원,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탄생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된 멸종위기 종 점박이물범의 암컷 은이(7세)는 수컷 '제부도'(20세 추정)와의 사이에서 가진 새끼를 지난 2일 순산했다.

서울대공원의 호저도 이달 2세를 낳았다.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대형 설치류 아프리카 호저, 너구리에 가까운 소형 육식동물 킨카주가 각각 2마리, 1마리씩 출산했다. 갓 태어난 새끼를 꼭 품고 있는 어미를 자극시킬까 사육사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

사진 : 서울대공원TV 출처 : 조선일보

뉴욕 Bronx동물원 호랑이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됐다

Bronx , NY | April 05, 2020

Bronx동물원의 말레이시아호랑이 나디아(4살,암컷)가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 USDA 국립수의과학연구소에 의해 양성확인되었다.

나디아와 언니 아줄, 2마리의 시베리아호랑이, 그리고 3마리의 아프리카사자가 마른 기침을 했었다. 현재 식욕 감소를 경험했지만,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육사의 보호 안에 잘 지내고 있다.

이 질병이 큰 고양이과 동물에게 어떻게 발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물원에서는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완전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영향을 받은 4마리의 호랑이들은 동물원의 타이거 마운틴 전시장에 살고 있다.

타이거 마운틴에 사는 수컷 시베리아호랑이 1마리는 임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아시아 전시장에 사는 말레이시아호랑이 1마리, 시베리아호랑이 2마리도 임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동물원의 설표, 치타, 구름무늬표범, 아무르표범, 퓨마, 서발 중 어떤 것도 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물원의 고양이과 동물들은 무증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사육사에 의해 감염되었다. 현재 모든 직원들과 WCS 네곳의 동물원에 있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을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물원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더 이상의 노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WCS 네곳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3월 16일부터 잠정 폐쇄되었다.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